

관광국장단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앞장

4일 창덕궁서 ‘워크숍’ ... 관광 정책 추진 방향 및 수용태세공유

16개 시·도가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와 관광 산업의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4일 창덕궁 연경당에서 ‘시도 관광국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문화부 최광식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안경모 장관관공관장, 문화부 관광산업국장,

16개 광역지자체 관광 담당 국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는 11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인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유치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우리 관광 산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부는 우리 관광 산업의 수용 태세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중국 등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

했다.

문화부는 2012년에도 지자체 관광 담당 국장들과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향후 국내 관광,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가적 문화관광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클린디젤택시, 연비 LPG택시의 2배 이상

연비 좋고 내구성 좋은 클린디젤 택시 도입, 택시업계 노사 모두 환영



클린디젤 택시에도 LPG택시와 동등하게 면세 혜택을 부여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연료선택권을 확대 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 달 27일 ‘2011년 클린디젤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의 사전행사로 ‘클린디젤택시 시범보급사업’ 소개와 ‘택시용 디젤에 대한 면세 필요성’ 논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클린디젤 택시를 공개했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명규 의원 외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병석 이사장,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회본부 김기용 정책부장 등 택시 노사관계자와 한국기계연구원 정동수 박사가 참석하여 클린디젤 택시의 우수성과 디젤 연료의 면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대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클린디젤택시시범보급사업의 연구결과 클린디젤 택시가 LPG 택시 에 비해 연비는 2배 이상 좋고 환경성도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클린디젤택시는 연비가 12(km/ l)가 넘어 6(km/ l)에 불과한 LPG 택시를 압도하였으며 환경성도 CO와 CO2 등이 좋은 디젤택시가 HC, NOx 등에서 좋은 LPG택시보다 연간 환경비용 분석 결과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계연구원 정동수 박사(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는 “시범사업 운행 결과 디젤택시가 LPG택시보다 연비 및 친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클린디젤 택시에 면세 혜택을 줘도 연비가 2배 이상 좋으니 정부 지원금도 줄어들어 국가세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택시업계 노사양측도 클린디젤 택시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박병석 이사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LPG 가격 급등으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한 택시운수업체에 클린디젤택시 도입을 통한 연료 선택권 확대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연비, 내구성, 파워 등 모든 면에서 LPG택시를 압도하는 클린디젤 택시의 전면 보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가장 현실적인 그린카로 불리는 클린디젤 택시의 도입이 환경문제 해결과 택시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절실한 만큼 클린디젤택시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관성적으로 LPG택시에만 면세혜택을 주지 말고 디젤택시에도 면세혜택을 LPG와 동등하게 부여해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

를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규의원은 클린디젤 택시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클린디젤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유럽자동차공업회 폴그리닝 이사, 주한 독일 대사관 요하네스 레젠브레흐트 부대사, 전 일본자동차연구소 김에기치 수석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정동수 박사, 카이스트 배충식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형건 박사, 관동대학교 홍창의 교수, 산업연구원 이항구 팀장 등 국내외 석학이 참석해 수송부문 연료 및 차량의 공정경쟁성 확보방안과 가장 현실적인 그린카라는 클린디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5회 육운의날 행사14일 개최

제 25회 육운의날 행사가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반포동 소재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협회가 주최할 이날 행사에서는 육운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과 함께 육운 산업발전을 다짐하게된다.

비정규직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 확장

한국주택협회(회장김종인)는 회원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만료 등에 따른 고용불안등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간 인력 정보 교환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하여 작년 9월에 오픈한 취업포털 사이트 '주택분야 전문인력지원센터(job.housing.or.kr)' 내 비정규직

채용 서비스를 신설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설한 비정규직 서비스는 기업체에서는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임금수준·복지후생 등 상세한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자격·경력 등 상세한 인적정보를 기업체에게 제공하여 비

정규직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회는 급변 비정규직 서비스 확장으로 회원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등에 따른 업무연속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구직자들에게 고용의 불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원&원 빅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프로보)는 10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달성을 기념하여 SM3, SM5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의 저리할부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원&원 빅 페스티벌’ 이벤트를 1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원 빅 페스티벌’ 이벤트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모든 고객에게 SM3, SM5를 구매시 1%의 저리할부를 제공하고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지점 및 직영 A/S 센터에 비치된 응모함을 통해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All-New SM7(1명), 삼성전자 55인치 최신헤 스마트TV(10명), 서울 W호텔 숙박권(1박2일/조식 및 석식 포함·50명), 갤럭시탭 와이파이(100명), 롯데백화점 20만원 상품권(1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철길, 강변따라 달리는 ‘녹색 자전거 열차’

에코레일자전거열차 시승행사가 지난 5일서울역에서 자전거동호회원 3백50여명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코레일관광개발과 한국관광공사, 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녹색 자전거 열차’는 열차내에 자전거 적재가 가능해

기차여행과 자전거여행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녹색 자전거 열차가 특별한 점은 여객용 열차뒤에 자전거 전용객차를 따로 설치해 여행객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레포츠 열차로, 출발 시,

전용 통로를 통해 별도의 계단이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올 가을을 기점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을 따라 1.187km에 달하는 새로운 자전거길이 열리게 된다.

건축사 자격시험 예비합격자 368명 발표

3,882명 응시 합격률 9.5%, 지난해보다 높아져

2011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 명단이 지난 4일 국토해양부(www.mltm.go.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등을 통해 발표됐다.

올해 시험에서는 총 3,882명이 응시한 가운데 368명이 합격하여 9.5%의 합격률을 보임으로써, 지난해 합격률(9.1%)보다 약간 높아졌다

최고 득점자는 충북대 건축공학

과를 졸업한 이장원씨(32세)로 300점 만점에 232점, 평균 77점을 기록했다. 합격예정자 중 최연소자는 만 29세의 정선화씨이고, 최고령자는 만 51세의 박동현씨다.

여성합격자는 총 75명이며, 20.4%를 차지하여 지난해 19.9%에 비해 늘어남으로써 타 분야와 같이 건축사 분야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이들 합격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서류심사를 거친 후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경력증명서 등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신문 | 1988년 10월 17일 창간. WWW.CNTN.CO.KR 1988년 4월 20일 등록번호 다 - 520호(週刊)

회장·발행인 / 박영규 편집인 / 진영석 주필 / 이명우 편집국장 / 양노홍 인쇄인 / 김준배

140 - 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 - 2 대표전화 (02)- 792 - 9252 FAX (02)-796-8296

편집국 (02)792 - 9252	교통팀 (02)792 - 9254	건설팀 (02)792 - 9253
관광팀 (02)792 - 9252	광고접수 (02)792 - 9255	구독신청 (02)792 - 9252

THE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EWS

축 · 건설교통신문창간 23주년

맑은 서울,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으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유한철 이사장

서울버스가 친환경·친절버스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개선과 무공해 버스를 만들기 위해 CNG버스화, 저상버스화 등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한철 이사장 외 사업자 일동